

# 대통령의 정신 건강

광화문·부

김신영  
국제부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트루스소셜)를 구독하고 있다. 직업만 아니면 읽고 싶다. 밤낮없이 게시물을 올리는 통에 신경이 곤두선다. 대다수가 자기 과시나 욕설 섞은 비방이다. 가끔은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 올라왔다. ‘행복한 부활절 되라, 권좌 미치광이들(Lunatics)아!’ 괜히 봤다. 미국·영국 의사들은 소셜미디어 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고 나면 100개 넘게 올라와 있는 트럼프의 ‘트루스(트루스소셜에선 게시물을 이렇게 부른다)’를 보면 동의하게 된다.

사람을 게재해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후 만들어졌다. 그런데 최근엔 이 규칙을 바꿀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의 행동을 ‘분석’해야 한다는 여론 속에 과거와 달리 대통령의 정신 건강을 가능할 생생한 영상 등이 온라인에 많아졌으니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내라는 주장이다. 대통령의 ‘멘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지난해 미 대선도 이런 논의에 힘을 실고 있다. 민주당 후보이자 현직 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은 생방송 토론회에 나와 말 그대로 ‘깜박깜박’했다. 주변인들이 인지력 문제를 진작 알고도 숨겼다고밖에 볼 수 없었다. 바이든 관련 별도 사건을 수사하던 특별검사(로버트 허)가 선거 전 수사 보고서에 “바이든의 기억력 저하가 심각하다”고 평가했을 때도 민주당 측은 ‘정치 공세’라고 몰아세웠다. 뒤늦게 후보를 바꿨지만 민주당은 결국 완패했다. ‘핵 버튼’ 쥔 대통령이 그 상태로 일했다는 사실이 섬뜩하다.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폭주 심각한 중독 상태라 본다  
대통령의 신체적 건강만큼 정신 건강도 중요하지 않을까

로 ‘깜박깜박’했다. 주변인들이 인지력 문제를 진작 알고도 숨겼다고밖에 볼 수 없었다. 바이든 관련 별도 사건을 수사하던 특별검사(로버트 허)가 선거 전 수사 보고서에 “바이든의 기억력 저하가 심각하다”고 평가했을 때도 민주당 측은 ‘정치 공세’라고 몰아세웠다. 뒤늦게 후보를 바꿨지만 민주당은 결국 완패했다. ‘핵 버튼’ 쥔 대통령이 그 상태로 일했다는 사실이 섬뜩하다. 여러 이유로 대통령의 정신 건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미국에선 우드로 윌슨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자주 언급된다. 그는 1차 대전 종전 후 비수

한 비극을 막자며 유엔의 전신(前身)인 국제연맹 설립을 제안한다. 그런데 야당이 상원 비준을 앞두고 ‘전쟁 참여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등 몇몇 수정 사안을 제안하자 불같이 화를 내며 비준 자체를 사실상 스스로 무산시켜버려 세계를 경악시켰다. 미국 없이 출범한 협정은 국제연맹은 결국 나치와 2차 대전을 막지 못했다.

극단적 독선과 비현실적 이상주의에 집착했던 당시 윌슨의 정신 상태를 정신분석학 대가 지크문트 프로이트는 “아버지에 대한 과도한 애착이 초래한 자기 파괴적 성향”이라고 평가했다. 윌슨이 그즈음 뇌경색에 걸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음에도 이를 비밀에 부쳤고, 중요한 결정은 사실상 배우자가 했다는 사실까지 후일 드러났다. ‘뇌’ 상태가 망가진 대통령과 이를 숨긴 가족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나쁜 쪽으로) 바꾼 셈이다.

대통령이 되려면 남다른 고집과 자기애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하지만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공감 능력조차 없고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한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감추고 있다면 국가에 너무 큰 위험이다. 최고의 지도자 양성 교과서로 꼽히는 미 육군 교본은 ‘지도자는 어떤 기술이나 무기로 대체할 수 없는 자산’이라고 시작한다. 대통령은 특히 그럴 것이다. 40일 후면 또 대통령 선거다. 대통령의 정신 건강에 대한 미국의 논의가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은 이유다.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78]

## 배우 박신양이 그린 사과

지난 10일 한국에서 71년간 사목한 프랑스 출신 두봉 레나도 주교가 96세로 선종했다. ‘사과 10’은 배우이자 화가 박신양(1968-)이 두봉 주교에게서 받은 사과를 그린 회화 20여 점 중 하나다.

대한민국 성인이려면 배우 박신양을 모를 리 없다. 대중에게 박신양은 재벌 2세거나, 사채업자, 아니면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홀로 남은 아내를 위해 영상 편지를 남기는 순정남이다. 박신양과 극 중 인물이 이질감 없이 겹쳐 보이는 것은 그가 연기를 하는 동안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위해 극한의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서 박신양은 현실이 매우 생소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게 직업이기 때문일 것이다. 타인을 연기하면서 오롯이 나만의 감정과 내면을 찾는 일은 그만쯤 어려워울 것이다.

힘든 시기를 보내던 박신양은 두봉 주교를 찾아갔고, 두봉 주교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준 뒤 헤어지는 길에 사과 두 알을 보라색 종량제 봉투에 담아 주었다. 주교가 과연 그가 유명 배우인지 알았을까 싶지만, 알았더라도 뭐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박신양은 그 사과를 감히 먹지 못하고 바라만 보다, 시들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림으로 남기기로 했다. 캔버스 위의 사과는 다른 여느 사과와 달아서는 안 되고, 주교와 한 대화가 그에게 남긴 찬탄, 감동, 전율, 그리고 감



박신양, 사과 10, 2022년, 캔버스에 유채, 162.2 x 130.3cm, 작가 소장.

사를 담아야 했다. 오랜 시간 캔버스 앞에 서서 수없이 색을 칠하고, 형을 허물어 남은 그림은 ‘가장 향기롭고 아름다운 분’을 만난 박신양의 마음의 흔적이다. 이 사과는 오롯이 화가의 것이다. 포스트 교수·서양미술사

# 社 說

## 벌써 대미 수출 14% 격감, “어두운 터널 시작”

4월 들어 20일까지 미국에 대한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14.3% 격감했다. 미 트럼프 정부가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를 일괄 부과하고, 철강·자동차에는 25% 품목 관세를 매긴 결과다. 여기에다 90일간 유예된 국가별 상호 관세와 반도체 품목 관세가 어느 선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수출 타격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미국발 ‘관세 폭탄’이 한국 경제를 강타하기 시작했다.

주요 수출 품목 중 관세 부과가 유예된 반도체(10.7%)만 증가세를 보였고, 가전(-30%), 컴퓨터 기기(-23%), 석유 제품(-22%), 철강(-8.7%), 자동차(-6.5%), 정밀 기기(-5.9%) 수출이 모두 격감했다. 미국과 함께 우리의 양대 교역국인 대중국 수출도 3.4% 감소해 이중의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95%에 달한다. 경제가 수출 외 바퀴로 굴러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미국·중국의 관세전쟁은 한국 경제를 위기로 내몰 메가톤급 변수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지정하면서 무역 흑자 축소, 알래스카 LNG 개발

투자, 방위비 추가 부담 등 전방위적 부담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분기 마이너스성장 가능성을 말하며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라고 했다.

갑갑한 상황이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24일 시작된 ‘2+2 한미 통상 협의’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미 협상을 시작한 일본이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협상 타결 시점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넘기는 것이 지혜로운 대응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은 관세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미국·중국 대신 유럽·중동·남미·동남아·인도 등지의 수출 비중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아울러 관세전쟁에서 비켜나 있으면서 수출 확장 잠재력이 큰 방산·원전·조선 산업을 더 키워 수출 기반을 확대하는 전략을 민관 공동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수출 감소에 따른 성장률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내수 진작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

## 李 “상법 개정해 주가 5000” 기업 분발 없이 가능할까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의 총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기준안이다. 집중 투표제, 감사 위원 분리 선출 등을 추가해 더 강한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기업에 반발에 대해서는 “이기적인 소수의 저항” “규칙 안 지켜 부당한 이익 얻으면서 어떻게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상법 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원인으로 기업의 소극적 주주 환원, 후진적 지배 구조 등이 꼽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복 상장’ ‘조끼 상장’과 같은 대기업 행태는 한국 증시의 후진성을 보여준다. 대기업의 순환 출자 고리를 끊고 구조 조정을 돕자는 취지로 ‘물적 분할’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를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대주주 이익을 챙기는 제도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중복 상장 비율은 18.4%로 일본(4.38%), 대만(3.18%), 미국(0.35%) 등 주요국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안대로라면 이사회가 경영 결정을 내릴 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공정하게 따져야 하는데 주주 범위가 너무 넓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모호한 내용이다. 이 법을 근거로 1주를 가진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소액주주 피해를 막는다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중소·영세기업까지 적용되는 상법 대신 상장 기업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기업계 지적에 일리가 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 상법을 바꿔야 할 부분이 있는지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성장 동력이 떨어져 쇠퇴하는 기업이 증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데 있다. 지금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사업 모델 중 57개는 한국에서 창업조차 불가능하다. 10대 수출 품목 중 8개가 20년째 그대로다. 새 기업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기업들이 신바람이 나서 뛰지 않는데 상법을 아무리 고쳐도 증시가 활성화될 수 있겠다. 기업계 전반이 이토록 우려하는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기만 해서 기업의 분발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 ‘키 높이 구두’ ‘생머리나’ 수준 이하 국힘 경선

20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1차 토론회에서 수준 이하 공방들이 오갔다. 홍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 청년들이 물어보라고 했다면서 “키 높이 구두를 신느냐”고 물었고, 한 후보는 “그런 질문 하는 것 보니 청년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홍 후보는 “생머리나, 보정 속옷을 입느냐는 질문은 유치해서 안 하겠다”고 했고, 한 후보는 “유치하다”고 답했다. 한 후보 측에서 “B급 정치”라고 하자, 홍 후보는 “이미지 정치 말라는 것을 돌려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 측은 “눈썹 문신 1호 정치인이 이미지 정치를 비판할 자격이 있냐”고 했다. 나경원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남의 동지에 알을 낳는 빠꾸기”라고 했고, 안 후보는 “물범치의 끝”이라고 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힘 소속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때문에 실시된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선거에선 보궐선거 원인을 제 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유권자에게 사과하거나 변화의 의지를 밝힌다. 대선도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힘은 계엄과 대통령 파면으로 생긴 국정 혼란에 대해 사과하

고, 어떻게 보수 정당을 재건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신임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국힘 경선은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탄핵 찬성과 반대편으로 갈려 싸우는 것도 모자라, 유력 후보들 간에는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뒤로 밀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비판으로 날이 새고 있다. 국힘 후보 전체 지지율을 합쳐도 이재명 후보 1명에게 크게 못 미치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 와중에 ‘윤석열 신당’ 소동까지 벌어졌다.

국힘은 곧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그러나 키 높이 구두 같은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되면 후보가 누가 되는 국힘은 국민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국힘 지도부는 이 후보가 독주하는 민주당 경선을 두고 ‘씩씩이 독주’ ‘일당 독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후보 독주의 일등 공신은 다른 아닌 윤 전 대통령과 국힘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 국힘 경선 주제-의제 4가지

- ① 《이재명》저지
- ② 《배신자》OUT

나경원-이철우-홍준표, 한동훈 두들겼다  
국힘 《깨어있는》 당원들, 의로운 선택하라



▲ 홍준표는 한동훈에게 ‘충분히 큰 데, 왜 키높이 구두 신느냐’고 짓궂게 물었다. 이날 토론은 《배신자 한동훈 때리기》가 모인토크였다. © 뉴데일리

### ■ 배신자 한동훈 때리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비전 발표회가 20일 열렸다. 나경원-이철우-홍준표-한동훈 4인 후보(이하 존칭 생략). 저출산-교육 등 정책 토론은 물론 중요했다. 그러나 그런 건 의견들을 수렴해 몇 가지 항목으로 추리면 될 일이다.

가장 주목되었던 장면은 《사회통합》 분야에서 이철우가 한동훈을 거의 《책》으로 만든 대목이었다. 나경원도 강연자를 날렸다. 홍준표도 도 폐!

게임 선포에서 탄핵에 이른 과정과 관련해 이철우가 한동훈이 먼저 선부른 말문을 열었다. 홍준표가 게임은 반대했으면서도 탄핵도 반대한 건 좀 모순 아닌단 시비했다.

### ■ 나경원-이철우 강 편치, 홍준표 어퍼컷

그러자 홍준표-이철우가 연타를 날렸다. 이철우의 타격은 가히 원자탄이었다. 《의사당에 들어가 탄핵에 딱하니 찬성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뭐, 그 장본인이 경선에 뛰어들어?》

나경원은 “그만두지 않겠느냐”고 승통을 죄었다. 한동훈이 뭐라 무물거리니까, 나경원은 바짝 더 죄었다. “답변하세요, 그만두겠어요?” 이 싸움은 체

제 전쟁이다. 우리당 일부도 《중도확장》 떠들기 전에 제대로 된 가치부터 확립할 때다.”

홍준표, 이철우가 또 가졌다. “진영 싸움이 되다 보니 우리 쪽이면 도둑도 좋은 식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화양연화(花樣年華)》라고?”

끝판에 홍준표가 초특급 미사일을 날렸다. “이 선거는 어떻게든 이재명을 막자는 것이다. 2년 동안 그를 잡아넣지 못한 한 후보가 이번엔 어쩔 작정인가?”

한동훈은 답했다. “이재명에게도 반대하고 윤석열에게도 반대하는 것.”

“그럼 배신자 프레임은 어떻게 벗으려?” 이걸로 완벽하게 끝내졌다. 그가 뭐라 답변했든.

### ■ 2개의 주제와 2개의 의제

위 토론으로 국민의힘 선거의 《기조와 주제》는 확실하게 정해졌다.

- ① 《이재명》 막는 것. 그리고
- ② 《배신자》 아웃.

이건 남이 정해 준 게 아니다. 《나경원-이철우-홍

준표 vs. 한동훈》 내부인들이 자청해 정한 것이다.

- ③ 체제 전쟁
- ④ 자유 진영 정체성 투쟁

그렇다면 알겠다. 앞으로 국민의힘 《경선~후보 결정》까지의 전체 과정을 그 근거에서 바라보고 논의 하던 될 터이다.

국민의힘 경선은 그래서 《두 개의 의제》를 잡은 셈이다. 《체제 전쟁 + 자유 진영 정체성 투쟁》.

- ⑤ 체제 전쟁은 자유대한민국 수호 투쟁이다.
- ⑥ 자유 진영 정체성 투쟁은 “우리가 누군지”를 재확인하는 작업이다.

국민의힘 《깨어있는》 당원들의 의로운 선택을!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네트뉴스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4월 21일 게재 되었습니다.

